

일본 근세문예에 나타난 금전관*

- 『츠레즈레구사』 『장자교』 『일본영대장』 을 중심으로-

양 선 희**

(e-mail: ysh1231@hanmail.net)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츠레즈레구사』 에 나타나는 금전
 - III. 『장자교』 의 교훈
 - IV. 『일본영대장』 의 금전 양상
 - V. 맺음말
-

I. 들어가며

일본의 화폐경제는 근세 이전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세 때는 국가에서 돈을 주조 발행한 적이 없이 외국화폐인 중국의 화폐가 상품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다.¹⁾ 한편으로, 쌀과 벼가 상품뿐만 아니라 통화의 기능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것이 15세기 이후 상품 유통의 발전에 따라 돈의 수요가 증대되고, 마침내 17세기 중반에는 일본 독자의 화폐를 주조 발행하기에 이른다. ²⁾

사이카쿠는 통화제도가 정착하게 된 17세기 말인 겐로쿠 시대에 활약하던 작가로서 그의 작품에서는 금전을 소재로 하여, 금전에 의한 인간의 모습을 다양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683)

** 한남대학교 시간강사 일본근세문학

1) 本多博之(2010) 「天下統一と貨幣」 『西鶴と浮世草子研究』 Vol.3, 笠間書院, pp.115-116

2) 간에이(寬永) 연간(1630년대), 마침내 일본 독자의 「새돈」(寬永通寶)을 주조·발행하게 된다(앞의 注1의 책, p.120). 그리고 『일본영대장』 권4의3에도 “새로 주조한 간에이통보를 이백관 준비해서(新錢貳百貫調へ)”라는 말도 찾아볼 수 있다.

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일본영대장(日本永代藏), 이하 ‘영대장’이라고 함』(1688년 간행)은 경제소설이라 일컬어져 왔다.

그런데 이 작품의 부제를 보면 ‘대복신장자교(大福新長者教)³⁾’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간에이(寛永) 4년에는 근세의 가나조시인 『장자교(長者教)』(1627년 간행)가 간행되었다. 그리고 근세인의 사상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해지는 중세수필인 『츠레즈레구사(徒然草)』 가운데 제217단에는 ‘대복장자(大福長者)가 말하길’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부자(長者)의 금전에 대한 가치와 이에 따른 교훈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 작품은 ‘대복신장자교’ ‘장자교’ ‘대복장자가 말하길’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지금까지 치부, 처세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영향관계를 언급해 왔다. 한편, 『영대장』은 상인들의 치부담을 그리고 있는 경제소설로서 인식되어져, 이와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된 경향이 있다⁴⁾. 하지만, 본고에서는 화폐제도가 수립된 근세 17세기라는 점에 주목하여 중세와는 다른 근세인의 금전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츠레즈레구사』에서 보여지는 금전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살펴보고, 『장자교』와 『영대장』에서 그려진 금전 묘사를 검토함으로써 전자의 영향 및 상이점이 규명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 근세인이 갖고 있는 금전에 대한 사고와 가치관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3) 『日本永代藏』의 해설에 의하면, “‘대복신장자교(大福新長者教)’라고 부제를 붙인 것은 간에이 4년 간행된 『장자교(長者教)』를 의식한 것으로 초년의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하는 교훈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93), 『日本永代藏』(決定版対訳西鶴全集十二), 明治書院, p.209).

4) 浅野晃(1979)는 「經濟小説の光と影・日本永代藏」(『西鶴・創造の秘儀』『国文学』, 6月, 学灯社)에서, 사이카쿠가 주변에 모아진 여러 가지 경제사회의 정보를 처리하고 작품화해 가는 중에 금에 대한 집념과 인간성과의 모순상극의 모습, 또는 금의 마성대로 인간이 겪는 변천하는 운명의 양상을 보게 된다고 하며, 격렬한 경제사회 가운데서 악전고투하면서 때로는 번성하고 때로는 빈궁해져 몰락하는 상인들의 빛과 그림자를 묘사해 내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谷脇理史(1999)는 「最初の經濟小説『日本永代藏』の処世訓」『季刊アーガマ』147卷, 6月)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처세훈에 대한 언급은 『日本永代藏』이전 문학작품에도 있었으나 단순히 교훈을 나열해 놓은 것에 가깝다. 이에 비해 『日本永代藏』은 독자가 알고 있는 처세훈을 간명하게 적절히 핵심을 찌르고 있어 겐로쿠 상인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고 있으며, 상인들이 실감하고 생각하고 있던 처세훈을 비로소 문자화한 것이다 라고 한다. ヤン・シーコラ(2005)는 「西鶴と致富譚一井原西鶴の作品にみる町人像及びその変遷」(『国文学解釈と鑑賞』, 3月, 至文堂)에서 치부의 성공자의 이야기에서 다루는 덕목들을 열거하고, 특히 상인의 덕목으로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실천윤리로 들고 있다. 한편, 田中伸(1973)는 「西鶴の描いた金銭<日本永代藏>」(『西鶴・近世小説の源流』『国文学解釈と鑑賞』3月号, 至文堂)에서, 『日本永代藏』은 설화적 단편에 의해 정리되어진 작품이기에 많은 모순을 갖고 있다고 평한다. 그 모순의 근저에는 작품의 발상에 있어 『長者教』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며, 『長者教』의 교훈은 기본적으로 쌓여 기초를 두는 농업경제의 윤리에서 있는 전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 것을 「新長者教」의 교훈의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상업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그 경제활동은 금이 갖는 가치의 저장기능과 유동적 기능이 서로 얽혀 복잡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거기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II. 『츠레즈레구사』에 나타나는 금전

우선, 『영대장』의 금전에 대한 묘사를 보기 전에 『영대장』의 금전관에 영향을 끼쳤을 『츠레즈레구사』의 제217단을 보기로 한다⁵⁾. 이 단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이 부자(大福長者)가 부(富)를 이루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과 『츠레즈레구사』의 작가 요시다 겐코의 비평이다.

어떤 부자가 말하기를 “누구라도 만사를 제쳐두고 오로지 재산을 모아야 한다. 가난해서는 사는 보람이 없다. 부자만이 인간이다. 재산을 모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먼저 부자의 마음을 수행해야 한다. 그 마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오래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 반대로 가령, 인생은 아침이슬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일이다. 다음으로는, 일절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세상을 사는 동안 자신에게든 남에게든 욕망이 끝이 없이 생긴다. (중략) 어떤 사소한 일에도 돈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다음, 돈을 하인처럼 생각하고 맘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가난의 괴로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군주나 신처럼 외경하고 받들고 결코 자기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화내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다음, 정직해야 하며 약속은 굳게 지켜야 한다. (중략) 돈이 쌓이고 늘어 가면 음주가무 여색을 일삼거나 거처를 꾸미거나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하지는 않아도 마음은 언제나 즐겁다”고 하였다. 원래 사람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다. 돈을 재물로 보는 것은 그것으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욕망은 일어나도 그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고, 돈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면 가난뱅이나 다름없다.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 부자의 가르침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망을 끊고, 가난을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도 취할 수 있다. 욕망을 충족시켜 낙으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재물이 없는 편이 낫다. (하략)⁶⁾

5) 重友毅(1974)는 “단지 대복장자(부자)의 말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비난하고 야유하는 곳에 주된 의미가 있고, 『영대장』 또한 그 영향을 이어받은 것이었다”고 한다(「『徒然草』と西鶴』 『西鶴の研究』,文理書院).

6) 或大福長者の言はく、「人は万をさしおきて、ひたふるに徳をつくべきなり。貧しくは生けるかひなし。富めるのみを人とす。徳をつかんと思はば、すべからく、まづその心づかひを修行すべし。その心と言ふは、他のことにあらず。人間常住の思ひに住して、かりにも無常を觀する事なかれ。これ第一の用心なり。次に万事の用をかなふべからず。人の世にある、自他につけて所願無量なり。(中略)小要をも為すべからず。次に、錢を奴のごとくして使ひもちある物と知らば、永く貧苦を免るべからず。君のごとく、神のごとく畏れ尊みて、從へもちあることなかれ。次に、恥に臨むといふとも、怒り恨むる事なかれ。次に正直にして約を固くすべし。(中略)錢積りて尽きざる時は、宴飲・声色を事とせず、居所を飾らず、所願を成ぜざれども、心とこしなへに安く樂し」と申しき。抑人は所願

위의 인용문에서 ‘부자’는 가난해서는 사는 보람이 없으니 ‘부를 축적’하라고 한다. 그리고 부를 이루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언급하였다. ①사람은 오래 사는 존재로 무상을 떠올리지 말 것. ②욕구를 채우는 일을 자제할 것. ③ 돈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말 것. ④수치를 당하더라도 화내거나 원망하지 말 것. ⑤정직과 약속은 지킬 것.

한편, 이와 같은 부자의 생각에 대해, 요시다 겐코는 재물을 모으는 것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인데,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것은 가난한 자와 다를 바 없다고 비평하고 있다. 게다가 욕망을 충족시켜 낙으로 삼기보다는 재산이 없는 편이 낫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겐코의 ‘재물’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이 제18단, 제38단, 제140단에도 기술되어 있어 보기로 한다.

(제18단)사람으로서 자신의 몸가짐을 간소하게 하고 사치를 물리치고 재물도 소유하지 않고 이 세상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것이다. 예로부터 현인으로 부귀하게 된 경우는 드물었다. (하략)⁷⁾

(제38단)재물이 많으면 자신의 몸을 지키는 일에 소홀해진다. 재물은 해악을 사고 번뇌를 초래하는 매개물이다. 설령 죽은 후에 황금으로 복두칠성을 떠받칠 정도의 재물을 남긴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성가신 것이 될 것이다. (하략)⁸⁾

(제140단)죽은 후 재산을 남기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리 좋지 않은 것들을 쌓아두는 것도 꼴불견이고, 좋은 것들은 망자가 얼마나 마음을 두었을까 싶어 허무하다. 유산이 터무니없이 많은 것은 어떤 경우보다 유감스럽다. “내가 받겠노라”며 나서는 자들도 생겨서 사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추악하다. (하략)⁹⁾

を成ぜんがために、財を求む。錢を財とする事は、願ひをかなふるが故なり。所願あれどもかなへず、錢あれども用ゐざらんは、全く貧者とおなじ。何をか樂しびとせん。このおきては、ただ人間の望みを断ちて、貧を憂ふべからずと聞えたり。欲を成じて樂しびとせんよりは、しかし、財なからんには。(下略) (p.261-262) 본고에서 인용한 『즈레즈레구사』의 본문은 神田秀夫 他2 校注·訳者(1990)「日本古典文学全集」(27),小学館을 텍스트로 한다.

- 7) 人はおのれをつづまやかにし、奢りを退けて、財を持たず、世をむさぼらざらんぞいみじかるべき。昔より、賢き人の富めるは稀なり。(下略) (p.106)
- 8) 財多ければ身を守るに貧し。害を買ひ、わづらひを招くなかだちなり。身の後には金をして北斗をささふとも、人のためにぞわづらはるべき。(下略) (p.122)
- 9) 身死して財残る事は、智者のせざるところなり。よからぬ物蓄へ置きたるもつたなく、よき物は、心をとめけんとはかなし。こちたく多かる、まして口惜し。「我こそ得め」などいふ者どもありて、あとにあらそひたる、様あし。(下略) (p.207)

이상의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겐코는 제217단에서 부자가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의견과는 달리, 재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며, 재물은 해약과 고초를 불러들이는 매개물로서, 자식을 위해 재산을 남겨두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제108단에서는 “한 푼은 푼돈이라고 하나 조금씩 쌓이다 보면 가난뱅이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렇기에 장사꾼은 한 푼이라도 진정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다 (一錢輕しといへども、是をかさぬれば、貧しき人を富める人となす。されば、商人の一錢を惜しむ心、切なり。) ”라고 하여 검약함으로써 돈을 모으는 것과 상인들의 금전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였다.

Ⅲ. 『장자교』의 교훈

다음으로는, 『장자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본서의 내용은 카마다야, 나바야, 이즈미야 라는 세 장자(長者, 부자)가 마을 아이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이다. 그 서두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돈을 모으는 일은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것이다. 둘째, 검약해서 한 푼씩 모여 부자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가난의 원인이 된다. 셋째, 저축한 것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마라. 십전을 쓰기는 쉽고 일전을 모으기는 어렵다. 평소 자신의 분수에 맞게 생활해라. 검약을 하더라도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해라. 궁리해서 검약하고 가업에 전념해야 한다. 이후의 내용은 본격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교훈을 서술하고 있는데, 크게 여덟 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¹⁰⁾ 즉, 부자가 되기 위한 생활상의 행동윤리와 함께 그와 반대되는 행동도 나열함으로써 교훈하는 내용이다. 이 중에서도 첫 번째 ‘평소의 마음가짐에 관한 것(つねにたしなみの事)’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일 분별 있는 것
- 제이 정직해야 하는 것
- 제삼 인내해야 하는 것
- 제사 사람은 도둑, 불은 화재라고 생각하여 주의해야 하는 것
- 제오 고집을 버리고 타인의 이견을 듣는 것

10) 「つねにたしなみの事、けいこすべき事、たのみある人のうた、やくにたたぬものうた、きやうくのうた、ふくのかみ十人御子、びんぼ神十人御子、右十人を毎日くるべき事」로 여덟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p.10-15) 본고에서 인용한 『장자교』의 본문은 中村幸彦校注(1975) 『近世町人思想』 (日本思想大系59),岩波書店 을 텍스트로 한다.

제육 모든 후회는 무익한 것
 제칠 사치스런 마음을 꺼리는 것
 제팔 잡담은 무익한 것
 제구 타인에게 너무 관용하면, 자신의 몸에 손해가 되는 것
 제십 사람마다 관계가 밀접한 친한 친구로 행동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덕이 높은 사람 선한 사람은 사귀려고 해야 한다. 누구나 거리를 두지 않고 끊임없이 사귀어 주의 깊은 답과 같이 되는 것을 교제가 능숙한 사람이라고 한다.¹¹⁾

위의 내용 이외에, 금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내용만을 들어 보면 ‘교훈의 노래(きやうくのうた)’라는 항목에 “고생해서 돈을 저축해라.”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간 보잘 것 없고, 가난만큼 서글픈 일은 없다”¹²⁾고 한다. 또한, ‘복신의 열 아이들(ふくのかみ十人御子)’이라는 항목의 끝 부분에서는 “아까운 것을 팔고 원하는 것을 사지 않고, 돈을 주인이라고 생각해라. 주인을 도대체 부린단 말인가”¹³⁾라고도 한다. 그리고 본서의 말미에는 “부유한 사람은 필시 유람, 재미있는 일만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돈이 필요한 것이다. 돈은 불에 넣어도 손해 보지 않고 물에 넣어도 썩지 않는다. 점점 더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카마다야, 나바야, 이즈미야 이 세 사람의 금언을 잘 분별해서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¹⁴⁾라는 말로 이야기를 끝맺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자교』에 대해서 『近世町人思想』(岩波書店, 1975)의 해설에 의하면 이 책은 간에이 4년(1627)의 고허자본·정판본과 함께 이전에 사본이 존재했고, 그로부터 쇼토쿠(正徳, 1711~1715)까지 약 백년간 긴 생명을 갖는 책으로 그 아류작도 많이 있으며 근세 전체를 통해서 초닝의 도의 초보의 교훈이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사이카쿠가 『영대장』(1688)을 출간했을 때, 부제로 ‘대복신장자교(大福新長者教)’라고 붙인 것도 이 책의 유행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고까지 설명하고 있다¹⁵⁾. 한편, 野間光

11) 第一 ふんべつの事、第二 しやぶきにすべき事、第三 かんにんすべき事、第四 人はぬす人、火はじやうまうと、こゝろへべき事、第五 じやぶきをやめ、いけんにつくべき事、第六 こうわいいらざる事、第七 まんきを、いむべき事、第八 ぎうたんむやくの事、第九 よしや半吉の事、第十 人ごとに、ふかくちるんだて、いらざる事されども、大人・ぜんにんには、ちかづくべし。いづれも、へだてず、よせず、にわたりのごとくなるを、めいじんといふなり。(p.10-11)

12) (上略) らくするな、(中略) ぎんをもたねば、にむげんのかずならず、あさましき次第なり。(p.12)

13) をしき物をうりて、ほしき物をかわずして、銀をば、しうとおもへ。しうを、そもやつかふものか。(p.13)

14) うとき人は、さぞゆさん、おもしろき事のみ、おはすらん。なににつけても、かねのほしきよ。それきんは火に入ても、そんせず、水にいりても、くちず、いよいよひかります物なれば、かまだや・なばや・いづみ屋、この三人のきんげんを、よくふんべつして、一ふんーりんにて、おろそかにつかふべからず。(p.16)

15) 앞의 注10과 같은 책. (p.409-410)

辰은 이런 『장자교』가 하나의 작품으로서 완성된 그 시초는 『츠레즈레구사』의 제217단에 ‘대복장자(大福長者)가 말하길’이라는 대목에서 출발한다고 한다¹⁶⁾. 또한 重友毅도 『장자교』계통에 속하는 일련의 읽을거리도 나중 것일수록 『츠레즈레구사』의 영향을 현저하게 보인다고 말한다¹⁷⁾. 즉, 『장자교』는 『츠레즈레구사』의 영향에 의해 발생된 초닝 치부처세의 교훈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고는, 앞에서 『장자교』의 내용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수궁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츠레즈레구사』 제217단의 ‘대복장자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강조하나, 『장자교』는 교훈서답게 그 방법을 서술하면서 특히 검약을 강조하고, 가업에 전념하기를 가르친다는 점이다. 게다가 흥미로운 것은 『츠레즈레구사』의 대복장자는 ‘돈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 『장자교』에서는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돈은 사용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IV. 『영대장』의 금전 양상

1. 금전과 노후생활

우선, 권1의1 「初午は乗ってくる仕合」에 보이는 ‘금전’에 대한 묘사를 보기로 한다.

인간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은 처세이기 때문에 사농공상은 말할 것도 없고 승려·신직 어떤 직업이라도 검약의 신의 신탁에 의해 돈을 모으도록 해야 한다. 이 돈이라는 것은 부모 이외의 목숨의 부모이다. (생략) 죽어버리면 돈도 무슨 도움이 되랴 기와나 돌보다도 못한 것이다. (중략) 그러나 남겨두면 자손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다. 남몰래 생각하니 세상의 모든 인간의 바람은 무엇이든 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¹⁸⁾

16) 野間光辰(1938) 「『長者教』考」 『国語国文』 4月, p.159

17) 重友毅는 『일본영대장』의 부제 「新長者教」는 당대의 독자에게 귀에 익숙한 『長者教』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용의 일면을 빨리 이해시키려고 한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영향관계를 찾는다면 『츠레즈레구사』의 제217단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한다. (앞의 注5 와 같은 책, p.93)

18) 一生一大事、身を過るの業、土農工商の外、出家・神職にかざらず、始末大明神の御託宣にまかせ、金銀を溜るべし。是、二親の外に命の親なり。(中略) 死すれば何ぞ、金銀、瓦石にはおとれり。(中略) 然りといへども、残して子孫のためとはなりぬ。ひそかに思ふに、世に有程の願ひ、何によらず銀徳にて叶はざる事、(p.4) 본고에서 인용한 『영대장』의 본문은 麻生磯次·富士昭雄著(1993) 『日本永代蔵』 (決定版対訳西鶴

여기에서 ‘돈’이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목숨’에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나, 남겨두면 자손을 위한 일이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바라는 바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돈의 가치에 대한 언급은 『츠레즈레구사』의 제 217단에서는 “부자만이 인간이다” 『장자교』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간 보잘 것 없다”라는 표현으로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죽음 앞에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돈’에 대한 인식과 ‘자식을 위해 재산을 남겨 두고자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후자의 바로 이 내용은 앞의 『츠레즈레구사』 제38단, 제140단에서 『츠레즈레구사』의 작자 겐코가 재산을 남겨두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일이 아니며 유산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추악하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그리고 권3의1 「煎じょう常とはかはる問薬」에는 재산가가 된 사람이 나이 70이 되어서 여생을 즐기는 내용이 있다.

처음으로 상의하의 모두 히다 비단으로 갈아입고, (중략) 돌아가는 길에 코비끼 거리의 연극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바둑 친구들을 모아서 즐기고, 눈 내리는 동안은 신차를 마시는 모임을 베풀고, (중략) 하시바 화장터의 연기가 뿜뿜이라는 것을 알고 (인생의 무상한 것을 깨닫고), 영리하게도 노후의 생활비를 별도로 마련해 두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즐기며 지냈다.²⁰⁾

젊어서는 인색하리만큼 검약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 부자가 된 후에 노후를 여유 있게 보낸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권4의1 「祈るししの神の折敷」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사람은 많은 종업원을 두고 만사를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하고 싶은 대로

全集12) 明治書院 을 텍스트로 한다.

19) 『영대장』에서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고자 하는 것은, 후술하겠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인식, 즉 자본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권1의2 『二代目に破る扇の風』에서는 유산을 받은 아들이 바람기가 생겨 유산을 탕진하거나, 권5의3 『大豆一粒の光堂』도 마찬가지로 유산을 받은 아들이 주색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내용이다. 권5의5 『三勿五分曙のかね』에서는 아들의 낭비하는 모습을 보고 검약하는 여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으나 이 또한 주색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내용도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이 『영대장』에서는 2대에 걸쳐 재산을 보존하는 예는 찾아 볼 수 없고, 대부분 자수성가에 의해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20) はじめて上下共に飛驒紬に着替、(中略) 下向に、木引町の芝居を見物、夜は碁友達をあつめ、雪のうちには壺の口を切り、(中略) 羽芝の煙となる身を知て、老の入前かしく取置、世に有程のたのしみ暮し。(p.78)

즐기며, 젊은 때의 노고를 만회하였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재산의 보전법이다. 설령 만관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노후까지도 그 몸을 움직여서 신경 쓰며 세상을 사는 사람은 일생은 꿈과 같이 허무한 것을 모르는 자로 이래서는 아무리 돈을 모아도 아무런 이익도 없을 것이다.²¹⁾

위의 두 예문을 통해서 보듯이 『영대장』에서는 젊어서는 돈을 모으고 노후에는 모은 재산을 쓸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앞서 기술했듯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돈에 대한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사고에서 나오는 금전관이기도 하였다.²²⁾ 이러한 내용은 앞서 봤던 『츠레즈레구사』 『장자교』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즉, 『츠레즈레구사』의 부자의 언설에서 부를 축적하라고는 하였으나, 모은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것은 『장자교』 또한 마찬가지였다.

2. ‘돈이 돈을 번다’는 인식

『영대장』에서는 다음 3절에서 기술하겠지만, 검약과 정직, 가업에 힘써서 돈을 모아야 할 것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돈을 버는 데에 있어서 자본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권5의4 「朝の塩籠夕の油桶」의 서두에는,

지금은 돈이 돈을 버는 시절이기 때문에 좀처럼 방심해서는 세상살이를 할 수 없다.²³⁾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침에는 식초와 간장, 점심에는 소금, 해질녘에는 기름, 저녁에는 말굽을 만들어서 파는 등, 장사할 물건을 바꾸어 가며 열심히 생활한 결과, 50세 남짓 되어 돈 삼십칠관문을 검약해서 모았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본이 어느 정도 모여야만 부자가 된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 남자는 장사에 손을 대고 나서, 한 푼도 손해를 본 예가 없고, 매년 벌었지만, 원래 얼마 되지 않는 밑천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금 백량이 되는 것은 쉽

21) 此人、数多の手代を置いて諸事さばかせ、其身は楽を極め、わかひ時の辛勞を取かへしぬ。是ぞ人間の身のもちやうなり。たとえば万貫目持たればとて、老後迄其身をつかひ、氣をこらして世を渡る人、一生は夢の世とほららず、何か益あらじ。(p.111-112)

22) 본 예화의 마지막에 「とても向へは持て行ず、なふてならぬ物は銀の世中」(p.79)라고 되어 있어, 내세에는 가져가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하고 있다.

23) 今は銀がかねを設る時節なれば、中々油断して渡世はなりがたし。(p.167)

지 않았다. 가까스로 백량이 되어서는 점점 돈이 늘어나서 결국 아즈마구니의 부자가 되었다.²⁴⁾

위와 같이 ‘돈이 돈을 번다’는 인식은 권2의3 「才覺を笠に着る大黒」의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은 유곽에서의 유흥으로 재산을 탕진하자 부모로부터 의절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여비조차 없던 주인공은 교토에서 에도로 향하던 중, 어느 동네의 마을 아이들로부터 죽어버린 수소만한 검은 개를 얻는다. 이걸 구워서 효험 있는 늑대의 찜구이²⁵⁾라고 해서 팔아 남긴 돈으로 여비도 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장사의 밑천으로 삼았다. 그리고 열심히 장사를 하여 십년도 지나기 전에 큰 부자가 되었다. 게다가 이와 같은 묘사 가운데, 작가는 한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 넓은 에도이지만 일본 전역의 영리한 자가 모이기 때문에 삼문의 돈이라도 그렇게 쉽게 벌수는 없어. 어차피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기 때문에²⁶⁾

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한다.

위의 둘의 예화 이외에 권6의4 「身軀かたまる淀川のうるし」에도 “이것은 자신의 기지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타고난 행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돈이 돈을 벌어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었다 (これらは才覺の分限にはあらず、てんせいの仕合なり)。おのづと、金がかねまうけて、其名を世上にふれける。”라는 대목도 있다.

이상과 같이 돈이 돈을 버는 세상으로, 자본이 없이는 큰 부를 이루지 못하는 세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권6의2 「見立て養子が利発」에 “부모의 유산이 없어서는 뛰어난 재산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親よりゆづりなくては、すぐれてふうきにはなりがたし)”라고 되어 있듯이, 앞서 1절에서도 기술했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였던 것이다.

24) 此男、商売に取付て此かた、一錢も損をしたる例なく、年々に利得を求めたれ共、元すこの事なれば、金子百兩になる事、中々むつかしく、漸百兩に積て、それより次第に東長者となりぬ。(p.167)

25) 본고의 『영대장』 텍스트 p.58 〈注35〉에 의하면, “개를 늑대라고 속인 것은 늑대의 찜구이는 한(寒), 산기, 냉, 위경련에 의한 통증에 효험이 있다고 하여 초겨울 보신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계절적으로도 비싸게 팔렸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이 예화의 주인공이 집에서 쫓겨난 것은 한겨울이었다. 그리고 본문에 「これは瘡の妙薬になる犬なり。(中略) さては諸人の為ぞ」라고 되어 있으나, 개의 찜구이가 아닌 늑대의 찜구이라고 속인 것은 좀 더 비싸게 팔기 위한 상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6) 此広き御城下なれ共、日本のかしこき人の寄会、錢三文、あたにはもうけさせず、只銀がかねをためる世の中、(p.57)

3. 재산축적의 방법과 마음가짐

그럼, 다음으로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활 윤리로 삼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검약

앞서 1절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검약의 신의 신탁에 의해 돈을 모으도록 해야 한다’에 밑줄 친 것과 같이 ‘검약’에 의해 돈은 모아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검약이라는 말과 검약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 본 권1의1을 비롯하여, 권1의2, 권1의3, 권2의1, 권2의3, 권3의1, 권3의4, 권4의5, 권5의1, 권5의3, 권5의5에 나타난다. 그럼, 이 가운데에서도 검약의 중요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권2의1 「世界の借屋大将」의 주인공의 경우는 영리해서 그 자신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재산가가 된 사람이다. 이 주인공은 평소에 옷은 검소하게 입고, 설맞이 떡은 집에서 찜는 것은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간다고 하며, 손익을 따져 떡집에 맡기고, 나무를 심어도 작두콩을 심고, 딸아이는 서당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가르쳐 교토에서도 영리한 딸로 키우는 등 만사에 검약한 생활을 하는 주인공으로 그려지고 있다. 권5의3 「大豆一粒の光堂」은 소농이었던 농사꾼이 자신의 공리와 노력으로 큰 재산가가 된 이야기이다. 부자가 된 농사꾼이 죽자, 친척들은 그의 유산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에게도 유산이 분배되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은 외아들인 자식에게 남겨져 있었다. 다만, 자신이 사용했던 의복과 가재도구를 친척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뿐이었다. 이와 같은 인색한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작가는 주인공이 검약해서 이룬 재산이기에 친척들이 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줄 리는 없다고 하여 비난보다는 정당화시키고 있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 대목은 그 만큼 검약의 생활은 재산가가 되기 위한 덕목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시사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다.

(2) 정직

‘정직’이라는 말이 언급되거나 정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권1의5, 권3의3, 권4의3, 권4의4, 권5의1, 권6의1을 들 수 있다. 돈을 모으더라도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권1의5 「世は欲の入れ札に仕合せ」에서는 체면을 생각해서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걸치레에 신경 쓰는 세상인데, 집안이 몰락한 것을 숨기지 않는 정직하고도 지혜로운 미망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미망인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차지할 수 있는 입찰권을 마을 사람들에게 썩 가격에 내놓는다. 그래서 입찰권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집을 넘겨주고, 남긴 수익금으로는 빚을 갚고 다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권4의4 「茶の十徳も一度に皆」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장사법으

로 결국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된 상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차(茶)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된 주인공은 도리에 어긋난 욕심이 생겨 차 껍질을 섞어서 차를 팔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 나쁜 짓을 하늘이 벌하셨는지 주인공은 미쳐버렸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스스로 그 비밀을 내뱉고 다니자 비열하다고 하여 상대해주는 사람조차 없게 되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자신이 죽게 되면 많은 재산은 누구의 차지도 될 것인지를 억울해 한 나머지 돈을 움켜쥐고 눈을 뜬 채로 죽어버린다. 즉, 돈을 모으는데 있어서 정직할 것을 강조하고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불러온 돈의 해악을 잘 묘사한 예화라고 할 수 있겠다.

(3) 가업에 힘쓰기

‘가업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 곳은 권1의1, 권2의2, 권2의3, 권2의5, 권3의1, 권4의1, 권4의5, 권5의2, 권5의4, 권6의2를 들 수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검약, 정직에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것이 가업에 힘쓰는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권3의1 「煎じよう常とはかわる問薬」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처방전을 말해 주는데,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놓는다. “일찍 일어나기 다섯냥, 가업에 힘쓰기 스무냥, 저녁일 하기 여덟냥, 검약하기 열냥, 건강하기 일곱냥, 이것을 합한 오십냥의 약을 곱게 가루로 갈아서 (중략) 아침저녁으로 마시면, 큰 부자가 되지 못할 일은 없다”²⁷⁾고 한다. 여기에서 보듯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업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시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검약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업에 힘쓴다는 것은 권5의4 「朝の塩籠夕の油桶」의 결말 부분에 “귀족은 시 짓는 일을, 무사는 활쏘기 말 타기의 기술에 힘쓰고, 상인은 계산을 잘하고 저울의 바늘을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부지런히 매상장부를 쓰는 게 좋다”²⁸⁾고 묘사하고 있듯이, 신분을 막론하고 각자 자신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마음가짐’과 재치(才覚), 궁리하기 등의 지혜가 있다고 해도, 여기에서 일일이 예를 들어 기술하지는 않겠으나, 작가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므로 ‘자본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이미 앞의 2절에서도 일부 논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술한 ‘재산축적의 방법과 마음가짐’의 내용은 『영대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다. 우선, ‘검약하기’는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츠레즈레구사』 제217단의 부자의 언설에

27) △朝起五兩 △家職式十兩 △夜詰八兩 △始末拾兩 △達者七兩 此五十兩を細こして、(中略)是を朝夕呑込からは、長者にならざるといふ事なし。(p.74)

28) 公家は數嶋の道、武士は弓馬、町人は算用こまかに、針口の違はぬやうに、手まめに、当座帳付べし。(p.170)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고, 『장자교』에서는 ‘검약’이라는 말은 몇 번이나 나타날 정도로 강조된 바 있다. ‘정직하기’는 『츠레즈레구사』 『장자교』에서 언급되어졌고, ‘가업에 힘쓰기’는 『장자교』에서도 볼 수 있었다. 즉, 검약, 정직, 가업에 힘쓰기 등의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은 『영대장』 이전부터 서민들 사이에서 실천되어지고 전해져 내려온 생활윤리였을 것이다. 앞의 3장 ‘『장자교』의 교훈’에서 기술했듯이, 『장자교』 부류의 교훈서를 통해서 서민들에게 교훈되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의해 자연스레 『영대장』의 각각의 이야기에서 표현되어졌던 것이라고 생각한다.²⁹⁾

V. 맺음말

일본 근세문예인 사이카쿠소설은 금전에 얽힌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대장』에 나타나는 금전에 대한 사고와 가치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영대장』에는 『츠레즈레구사』의 금전에 관한 가치와 사고를 살펴보았듯이 중세시대의 금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근세의 가나조시인 『장자교』의 부(富)를 이루기 위한 생활상의 실천윤리가 『영대장』의 이야기의 곳곳에서 표현되어지고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세 농업경제시대의 금전에 대한 사고와 본격적인 화폐경제시대로 들어선 근세의 금전에 대한 사고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세시대에는 돈을 모으고 부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근세초기 『장자교』를 거쳐 『영대장』이 출판된 근세전기 상업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자 돈을 모아 부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하기 위해 모으는 것으로 인식되어진다는 점이다. 젊어서는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모으고 노후에는 모은 재산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며 젊었을 때의 노고를 만회하는 것이 진정한 재산의 보전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돈이 돈을 버는 세상 즉, 자본주의 시대에 대한 인식에 의해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근세인은 돈의 가치를 인정하고 저축함은 물론 그것을 향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였다.

29) 한편, 흥미로운 것은 『영대장』 권6의4 「身軀かたまる淀川のうるし」에는 「有長者の詞に、「ほしき物をかはず、おしき物を売れ」とぞ、此心のごとく、かせぎて奢りをやむれば、よきに極まる事なり」(p.200)라고 되어 있는 점이다. 이것은 앞서 『장자교』에서 “아까운 것을 팔고 원하는 것을 사지 않고”라고 교훈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예이다. 작가인 사이카쿠도 여느 서민들처럼 『장자교』를 읽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충영·엄인경 공역(2010) 『쓰레즈레구사』, 도서출판 문
- 浅野晃(1979) 「經濟小説の光と影·日本永代蔵」 『国文学』(「西鶴·創造の秘儀」), 6月, 学灯社
- 麻生磯次·富士昭雄訳注(1993), 『日本永代蔵』(決定版対訳西鶴全集十二), 明治書院
- 今泉忠義 訳注(2001), 『改訂 徒然草』, 角川書店
- 神田秀夫 他2 校注·訳者(1990) 『徒然草』(日本古典文学全集27), 小学館
- 重友毅(1974) 「『徒然草』と西鶴」 『西鶴の研究』, 文理書院
- 田中伸(1973) 「西鶴の描いた金銭—日本永代蔵」 『国文学解釈と鑑』(西鶴·近世小説の源流), 3月号, 至文堂, pp.97-102
- 谷脇理史(1999) 「最初の經濟小説『日本永代蔵』の処世訓」 『季刊アーガマ』147卷, 6月, pp.83-96
- 中村幸彦校注(1975) 『近世町人思想』(日本思想大系59), 岩波書店
- 野間光辰(1938) 「『長者教』考」 『国語国文』4月, p.159
- (1948) 「『長者教』考」 『西鶴新攷』, 筑摩書房
- 本多博之(2010) 「天下統一と貨幣」 『西鶴と浮世草子研究』Vol.3, 笠間書院, pp.115-116
- ヤン·シーコラ(2005) 「西鶴と致富譚」 『西鶴 挑発するテキスト』(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 3月, 至文堂, pp.225-234
- 吉江久弥(1969) 「西鶴の世界」 『国文学解釈と鑑賞』第三十四卷第十一号, 至文堂

要 旨

本稿は、近世文芸に現われた金銭に対する認識とその価値観の究明を試みたものである。初めに中世の随筆である『徒然草』と仮名草子である『長者教』における金銭に対する認識とその価値観を探り、次いで『日本永代蔵』の金銭についての内容を検討し、前者の影響を考察しつつ、両者の比較を試みた。『日本永代蔵』には、『徒然草』において考察したような中世の金銭に対する認識と価値観が流れているのは事実である。また『長者教』に見られる富を成すための生活上の実践倫理が、『日本永代蔵』の話の中にも表現されている。しかし中世の農業経済時代の金銭に対する思考と、本格的な貨幣経済時代に入ってから近世の金銭に対する思考には差異があるのが確認できた。つまり、中世時代には金を貯め、富を成すにだけ関心があったとしたら、近世初期の『長者教』を経て『日本永代蔵』の出版された近世の前期の商業資本主義の時代がくると金を貯め、富をなすだけではなく、使うために貯めるのであると認識されている点である。若いときには一生懸命に働いて金を貯め、老後には貯めた財産で世を楽しみながら若いときの労苦を取り返すのが真の財産の保存法であるという。そして金が金を儲ける世、言わば資本主義に対する認識によって親は子に財産を遺産として残そうとしたのである。このように近世の人は金の価値を認め、貯蓄するとともにそれを享受する生き方を追求した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 日本永代蔵、徒然草、長者教、金銭観、老後、お金、
商業資本主義

투 고 : 2014. 2. 28
1차 심사 : 2014. 3. 15
2차 심사 : 2014. 4. 5